

번역공학적 이성 비판: 디지털 시대 번역학의 과제*

이 영 훈
(고려대)

1. 서론: 누가 기계를 두려워하는가?

21세기 들어 번역가의 작업 환경과 번역 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목도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간번역가가 오로지 인간의 번역능력을 바탕으로(human translation)하거나 또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computer-aided translation) 번역 작업을 수행해 오던 상황에서 지난 20년간 기계번역에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도입됨으로써 인간번역가가 기계번역의 결과를 보정해주는(post-editing) 협업 방식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편, 전문 번역가(professional translator)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번역 업무는 개인적 취향을 동기로 삼거나 사회적 참여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각 분야 애호가, 소비자 및 자원자들에게 나날이 그 문호가 개방되고 있고, 구글 등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기계번역가가 인

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보급됨으로써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과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일반인 번역가(layperson translator)’들이 번역가의 전문성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일반인 번역가들이 촉발한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상의 협업 번역(collaborative translation) 또는 다중참여 번역(crowdsourcing translation) 방식은 전문 번역가들에게도 점차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언론에서는 마치 기계가 번역 업무에서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고, 조만간 전문 번역가가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될 것이라는 식의 AI와 4차산업혁명의 광풍을 조장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는 본고에서 이른바 황색언론(yellow journalism)¹⁾들의 낚시성 기사들에 현혹되지 않고, 인간번역과 기계번역 간의 상생을 도모하며, 두 가지 번역 방식에 대한 통합적 연구 방안을 추구하기 위한 조건으로 번역공학(translation technology)²⁾과 번역학(translation studies) 사이의 올바른 관계 설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실, 전향적인 관점에서 보면 21세기의 번역가는 근본적으로 기계친화적(machine-friendly)이고, 단순 번역 업무 외에 교정, 편집, 기획, 출판, 마케팅 등의 다양한 기능을 소화할 수 있어야(multifunctional)하며, 번역회사와 일반인 번역가 그리고 일반 대중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mediatable) 자질들을 골고루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사실, 기계번역과 인공지능에 대한 광풍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이미 미국에서 기계번역이 처음 개발된 1950년대, 특히 1954년 1월 7일 조지타운 대학과 IBM에서 겨우 250단어 규모의 러시아어 텍스트를 영어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시연했을 때 미국의 두 정론지에 나온 아래 기사들만 보더라도 오늘날의 ‘기계번역기(mechanical translator)’와 인공 ‘두뇌’를 둘러싼 과도한 기대가 이미 느껴진다.

유의미한 텍스트들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데 기계를 사용한 첫 번째 성공적인 시도로 믿어지는 공개 시범이 어제 오후 이곳에서 열렸

* 본 논문은 2018년 1월 30일 한국외대 통역번역연구소 주최 ‘디지털 시대의 통번역’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1) “원시적인 본능을 자극하고, 흥미본위의 보도를 함으로써 선정적인 경향을 띠는 저널리즘”(위키백과)
2) ‘번역공학’이란 개념과 그 표현에 대해서는 아래 4장에서 상술할 것이다.

다. 이것은 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기계번역기(mechanical translator)’를 탐구하여 축적된 결과일 것이다. 지금까지 이 시스템에는 겨우 250 단어의 어휘만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장치가 저장할 수 있는 단어들의 수나 번역 명령을 수행하게 될 언어의 수에는 예측 가능한 한계가 없다. 이 분야를 계속 연구해온 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수년 내로 이 시스템이 번역을 신속하고, 정확하며, 쉽게 수행함으로써 특히 기술 분야에서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이 대폭 증가될 것이라 믿고 있다. (Robert K. Plumb, “Russian is turned into English by a fast electronic translator; calculator takes on a new job: language translation. LANGUAGE DEVICE TRANSLATES FAST”, *New York Times*, 8 January 1954).

이 ‘두뇌’는 심지어 최상급에 속하는 자신의 다재다능함을 흡사시키지도 않았고, 자신이 이룩한 것으로 추정된 지적 성취에 대해서도 무덤덤한 태도를 보이며 손가락 튀기듯 가볍게 해석을 내놓았다. (Harry C. Kenny, ‘Robot Translates Nimbly’, *Christian Science Monitor*, 11 January 1954)

오늘날 국제사회의 ‘AI와 4차 산업혁명의 신화화’를 비판한 프랑스의 인공지능 학자 장-가브리엘 가나시아(Jean-Gabriel Ganascia)는 『특이점의 신화(*Le mythe de la singularité*)』(2017)라는 저술을 통해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에서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특정한 한 순간을 기술적 ‘특이점(singularité)’이라 할 때, 특이점 이론은 공상과학 소설이나 나올만한 말이며(p. 21-37), 최근 스티븐 호킹, 빌 게이츠 등이 경고했던 AI의 위협은 틀렸다고 주장한다(p. 129-154). 오히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특이점에 대한 각종 기대와 우려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신화’일 뿐이며, 특이점 신화 뒤에는 거대한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업들은 한편으론 정보기술의 개발을 주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그 기술이 인류를 파멸로 내몰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이중의 교묘한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에 대해 가나시아는 이들이 ‘방화범인 동시에 소방관인 형국’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p. 155-181).

‘한국 최초의 컴퓨터 박사’로 알려진 문송천 카이스트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기계의 叛亂이라고? 인간은 기계에 당할 만큼 어리석지 않아”)에서 이 세들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 전후로 최근 국내에서 무분별한 언론 보도로 인해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게 부풀려졌음을 지적하였다.

“사실 인공지능은 ‘알파고’의 바둑 대결로 너무 많이 부풀려졌다.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비중은 20%쯤 된다. 자동차로 치면 ‘알파고’는 바퀴에 불과하다. 자동차 엔진은 소프트웨어의 운영체제와 데이터베이스다. 이게 없으면 인공지능은 허수아비나 다름없다. ‘알파고’ 개발은 영국에서 했지만,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구글에 팔렸다. ‘알파고’ 대국 당시 영국에는 단 세 건 언론 보도가 있었다. 우리만 난리가 났다. 자동차 바퀴만 보고 열광했지, 그 속에 숨어있는 소프트웨어라는 진짜 실력자를 보지 못한 것이다. 우리 사회를 혼든 열풍은 ‘국가 인공지능연구소’ 하나 만들고 끝났다.”(조선일보, 2017년 12월 25일, <최보석이 만난 사람>)

홍성욱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는 편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령 - 우리는 왜 4차 산업혁명에 열광하는가』(2017, 29-53)에서 4차 산업혁명을 ‘정치적인 유행어’라고 단언하며,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생성해온 흑역사를 상기시켰다. 그에 따르면, 이미 1948년에 미국의 사회학자 해리 엘머 번즈(Harry Elmer Barnes)가 원자에너지와 초음속비행을 들어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다’고 말했고, 미국 경제학자 월트 휘트먼 로스토(Walt Whitman Rostow) 역시 전자공학, 유전공학 등의 발전을 두고 4차 산업혁명이라며, 1983년 한국을 방문해선 ‘한국도 4차 산업혁명 문턱에 이르렀다’고 말한 바 있다는 것이다.

한편, 러시아의 세계 체스 챔피언이자 이세돌에 앞서 IBM이 개발한 슈퍼컴퓨터 딥 블루와의 체스 대결로 유명해진 가리 카스파로프(Garry Kasparov)는 『딥 씽킹 -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서 오는가?(*Deep Thinking: Where Machine Intelligence Ends and Human Creativity Begins*)』(2017, 357-358, 361-362)라는 책에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테크놀로지와 인공지능의 발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인간의 창의력은 기계를 활용함으로써 훨씬 증대될 수 있다는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마찬가지 시각에서 언어공학자인 마틴 케이(Martin Kay)는 “The Proper Place of Men and Machines in Language Translation”(1980, 1)라는 기계번역 연구의 고전적 논문에서 컴퓨터를 적절히 사용하면 결코 인간 정신의 산물과 노동의 존엄에 조지 오웰(George Orwell)식의 전체주의적인 낙인이 찍혀 비인간화되지는커녕, 오히려 번역가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번역가의 생산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번역가의 작업이 보다 보람되고, 흥미로우며, 인간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금까지 언급된 역사적 사실과 학자들의 비판을 토대로 볼 때, 기계번역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과장되었고 우리 사회에서 오늘날 전방위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과도한 위기의식과 조급한 반응들도 황색언론의 사실 왜곡과 정부의 지나친 정치적 바람몰이로 인한 결과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흥분과 불안을 가라앉히고 보다 차분한 태도로 인간번역과 기계번역 사이의 역사적 관계 및 상호 공존 방안 그리고 번역학이 번역공학에 대해 견지해야 할 바람직한 입장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자.

2. 인간번역과 기계번역의 역사적 관계

먼저, 우리는 오늘날 ‘AI번역’이란 이름으로 마치 과거 인류가 어렵게 쌓아 올린 번역의 경험과 성찰을 뛰어넘어 모든 번역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펼치고 있는 기계번역과 이로 인해 위기에 빠진 인간번역 사이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른바 ‘기계번역학(Machine Translation Studies)’과 ‘인간번역학(Human Translation Studies)’³⁾의 역사를 비교하여 일별해보는 작업부터 시작하기로 하자. 서구 기계번역학계에서는 1661년 독일에서 요한 베허(Johann Joachim Becher)가 *Character pro notitia linguarum universali*(세계 언어 표기 문자)라는 저술에서 발표한 파지그라피(Pasigraphie), 즉 모든 언어로 쓰여진 문장들의 의미를 기술하도록 고안된 수학적 메타언어를 역사상 최초의 기계번역기로 간주한다. 또한 기계번역이란 분야는 워렌 위버(Warren Weaver)의 1949년 보고서 “Memorandum on

translation”에서 처음 제안되었고, 여호수아 바-힐렐(Yehosha Bar-Hillel)이 최초로 1951년 MIT대학에 기계번역 연구원으로 임용되었으며, 역시 MIT대학에서 1952년 최초의 기계번역 학술대회가 열렸고, 최초의 기계번역 시연은 앞서 소개한대로 1954년 조지타운대학에서 거행되었다. 1962년 미국기계번역 및 컴퓨터언어학회가 창립된 이후 1991년 유럽기계번역학회 그리고 1992년 국제기계번역학회가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인간번역의 역사는 공식적으로 기원전 196년 이집트 프톨레마이우스 왕조 하에 제작된 로제타 스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53년 국제통역가연맹과 국제번역가연맹이 창립된 이후, 1972년 제임스 홈즈(James S. Holmes)의 학술대회 발표문 “번역학의 명칭과 성격(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에서 최초로 ‘번역학(Translation Studies)’이란 학문 분야가 제안되었고, 1972년 벨기에 뢰벤에서 최초의 번역학 학술대회가 열렸으며, 1987년 캐나다 다번역학회를 필두로, 1992년 유럽번역학회, 그리고 2004년 국제번역 및 문화 상호학회가 연이어 설립되었다. 결과적으로 인간번역은 기계번역에 비해 그 실천의 역사가 훨씬 오래되었으나, 인간번역학이 정식 학문 분야로 인정되어 제도화된 전통은 기계번역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고 하겠다.

더구나 기계번역 분야는 1950년대에 이미 학문적으로, 기술적으로 그 토대가 마련되었는데, 특히 1951년 바-힐렐이 발표한 ‘기계번역의 현황’에 대한 논문 “기계번역 연구의 현황(The Present State of Research on Mechanical Translation)”에는 오늘날 기계번역 연구의 주요 분야들(Pure MT, Mixed MT, MT with a Post-editor, MT with a Pre-editor, MT between Restricted Languages)이 이미 망라되어 있었다. 반면, 인간번역학은 마리 스넬-혼비(Mary Snell-Hornby)의 번역학사(2006)를 참고하더라도 인접 학문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여러 번의 패러다임 전환을 겪었으며, 새로운 연구 분야들을 속속 통합하여 그 영역을 놀라운 속도로 확장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렇다면 인간번역학 내에서 기계번역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간번역학의 지형도 내에서 기계번역이 차지하는 위상은 어떠한가? 먼저, 제임스 홈즈가 번역학의 설립을 제안한 1972년 학술발표에서 기계는 인간과 더불어 번역의 양대 매체(medium)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으며, 컴퓨터가 수행한 번역은 기계번역으로, 인간과 컴퓨터가 결합되어 수행된 번역은 혼합번역 또는 기계보조번역이라

3) ‘기계번역학’이나 ‘인간번역학’이란 표현은 21세기 들어 기존의 번역학 연구가 인간번역과 기계보조번역을 벗어나 본격적인 기계번역 또는 AI번역까지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기존의 공학적 기계번역 연구를 통합하려 하거나 이와 대립적 관계에 놓이게 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두 학문 분야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기계번역학에 해당되는 ‘Machine Translation Studies’라는 영어 표현은 이미 1960년에 발간된 편저 *Machine Translation Studies of Semantic Techniques* (Ramo-Wooldridge)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지칭되고 있다.

무엇보다 사용되는 매체(medium)에 따라, 이 매체라는 표현을 약간 비정통적으로 확장하여 쓴다면, 본인이 매체-제한적(media-restricted) 번역 이론들이라 부른 이론들이 있다. 매체-제한적 이론들은 다시 인간에 의해 수행된 번역(인간번역), 컴퓨터에 의해 수행된 번역(기계번역), 인간과 컴퓨터가 결합되어 수행된 번역(혼합번역 또는 기계보조번역)에 관한 이론들로 각기 나누어진다. (.....) 기계번역과 기계보조번역에 관한 수많은 가치있는 연구의 사례들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친근하며, 인간의 구두번역에 관한 여러 연구의 사례들 또한 그러하다. (James S. Holmes,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 (1972), 1988, 74)

인간번역학 내에서 기계번역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그 위상이 변화되었는지는 모나 베이커(Mona Baker) 등이 편하여 출판한 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1998년 초판에는 기계보조번역 외에 기계번역의 역사, 방법 및 적용에 대한 항목들⁴⁾이 기술되었고, 2009년 발간된 제2판에는 컴퓨터보조번역과 기계번역의 두 항목⁵⁾으로 내용이 축소되었으며, 2020년 제3판에서는 컴퓨터보조번역 항목이 사라지고, 기계번역 외에 통역과 테크놀로지, 번역과 테크놀로지, 시청각번역과 테크놀로지 항목들⁶⁾로 다시 내용이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특히 제3판에서는 순수 기계번역과 테크놀로지 기반 인간번역으로 양분되어 과거 인간번역이 컴퓨터로부터 제한된 도움을 받는 양상에서 벗어나 컴퓨터를 포함한 각종 정보 테크놀로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인간번역과 기계번역 사이의 관계가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Machine-aided translation" (Karl-Heinz Freigang), "Machine translation, applications" (Harold L. Somers), "Machine translation, history" (Harold L. Somers), "Machine translation, methodology" (Harold L. Somers).
 5) "Computer-aided translation" (Minako O'Hagan), "Machine Translation" (Ke Ping).
 6) "Machine translation" (Dorothy Kenny), "Technology, audiovisual translation" (Minako O'Hagan), "Technology, interpreting" (Sabine Braun), "Technology, translation" (Maeve Olohan).

3. 번역학과 테크놀로지

마이클 크로닌(Michael Cronin)은 2013년에 발간된 '디지털 시대의 번역 Translation in the Digital Age'이라는 책에서 디지털 시대에 구글 번역기 등 기계번역의 발달로 인해 일반인들의 뇌리에는 번역이 마치 주체 없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자동화된 기능으로 비취짐으로써 과거 서구에서 비가시성을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번역가의 신세가 아예 중개자로서 존재감이 없는 상태로 악화되고 있다고 개탄한 바 있다.

구글번역기에 대해 밝혀지고 있는 점은 그것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니라 번역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구글번역기가 말하는 것이 갖는 무한한 성격이다.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또다른 형태의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이다. 구글번역기의 경우 중개자로서의 번역가는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 번역 과제가 인간의 육신에서 분리되어 순간적으로 실행된다는 것은 번역이 결코 시간의 관여 없이 실현되고, 주체가 배제되는, 자동적인 기능이며, 언어가 번역되면서 텍스트가 바뀌지만 레이아웃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점에서 번역은 근본적으로 연결시키거나 대체하는 조작이라는 것을 함의한다. 컴퓨터 자판에서 '번역하기' 버튼을 치거나 '이 페이지를 번역하시오' 링크를 누르는 것은 자판 입력을 넘어서 패러다임 전환이다. (Michael Cronin, *Translation in the Digital Age*, 2013, 45-47)

한편, 마틴 케이는 현대 기계번역학의 시금석이 된 1980년 논문에서 급증하는 번역의 수요에 비해 번역자는 턱없이 부족하고, 따라서 컴퓨터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세상에는 번역가가 심각하게 부족하다. 어느 누구도 거의 이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상호 번역되어야 할 언어쌍의 수도, 번역과 관련된 문서들의 유형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번역에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유도하고 번역이 제 가치를 당연히 인정받게 해주는 지위를 보장해주면서 번역이라는 직업에 투자할 돈은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컴퓨터 시대의 후손들이고,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컴퓨터로 시선을 돌린다. (.....) 우리가 컴퓨터를 바라보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일이다. 번역의 필요

성이 말해지는 바 그대로 점차 커진다면, 사실상 컴퓨터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Martin Kay, 'The Proper Place of Men and Machines in Language Translation', 1980, 1)

사실, 인간번역학과 기계번역학의 역사를 관찰해보면 번역에 대한 공통된 관심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기계 그리고 인간번역학과 기계번역학은 역사적으로 얽힘이나 교차될 없이 최근까지 상호 협력 보다는 상호 무관심 속에 독립적으로 존재해왔으며, 이는 번역학자와 언어공학자들의 글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먼저, 흠즈의 번역학 지형도 내 기계는 인간과 더불어 번역의 매체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아래 인용된 인간번역학의 세 연구자들은 주류 또는 제도권 번역학이 테크놀로지를 일관되게 무시해왔음을 증언하고 있다.

동시에 전문용어학, (번역메모리 시스템과 더불어) 언어공학, 기계번역 같은 영역들은, 대체로 언어학 및 전자공학과 같은 인접 학문분야들을 통해 서이긴 하지만, 실제로 번역학 내에서라기 보다는 번역학과 나란히 신속하고도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해왔다. (Mary Snell-Hornby, *The Turns of Translation Studies*, 2006, 133-134)

테크놀로지와 번역은 주류 번역이론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무시되어 왔지만 실무 번역가에게는 필수불가결한 (.....) 영역과 관련된다. (Jeremy Munday, *Routledge Companion to Translation Studies*, 2009, 15)

그러나, 번역 실무의 모든 측면을 파고드는 테크놀로지 상의 증거가 증가일로에 있는 반면, 테크놀로지 자체는 번역학이라는 학문 분야에 유의미한 인식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Minako O'Hagan, 'The Impact of New Technologies on Translation Studies: A Technological Turn', 2013, 503)

물론, 기계번역 기술과 기계번역학의 발전을 주도해온 컴퓨터공학자, 커뮤니케이션학자, 정보처리 이론가들 역시 인간번역에 대한 빈약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각종 번역 이론들과 번역학자들이 제안한 번역 절차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자신들의 연구 프로젝트에 번역학자나 전문번역가를 참여시키지 않았다.

의미심장하게도, 기계번역 연구는 언어학자나 번역학자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이론가들에 의해 촉발되었다. 본인은 1950년대, 1960년대 또는 (1978년 이전의) 1970년대 기계번역 프로젝트 가운데 번역학자나 실무번역가가 참여한 경우가 하나라도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Wolfram Wilss, 'Interdisciplinarity in Translation Studies', 1999, 141-142)

그 어떤 기계번역 시스템의 언어 부문에 번역학자가 제안한 번역 공정들이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계번역 관련 문헌들은 없는 것 같다. (Chiew Kin Quah, *Translation and Technology*, 2006, 35)

번역 문제들은 공학자들에 의해 쟁점이 되는 번역에 관한 자신들의 부족한 지식을 바탕으로 정의된다. 전산학이나 공학적 관점에서 쓰여진 언어 공학에 관한 문헌들은 번역이론들을 무시하고 있고,..... (Minako O'Hagan, 'The impact of New Technologies on Translation Studies: A Technological Turn', 2013, 507)

더구나 라우트리지에서 2015년 출간된 라우트리지 번역공학 백과사전(The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Technology)에서 제시된 기계번역의 정의에 따르면 기계번역은 컴퓨터언어학이나 자연어 처리의 하위분야로 그 핵심은 기계보조 인간번역이나 인간보조 기계번역, 컴퓨터보조 인간번역과 무관한 완전히 자동화된 번역과정을 담당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언어공학자인 마틴 케이는 1980년 논문의 후속편인 '언어 번역에서 인간과 기계의 적절한 위상 재론 (It's Still the Proper Place)'(1997)에서 번역을 오로지 자동화될 수 있는 현상으로만 파악하는 공학자들의 좁은 시야를 이미 비판한 바 있다.

정의: 기계번역(MT)

기계번역(MT)은 자연언어들 사이에서 텍스트나 발화를 번역하는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탐구하는 컴퓨터언어학(CL)이나 자연언어처리(NLP)의 하위 분야이다. 기계번역의 핵심은 전체 번역 공정의 자동화이며, 기계보조 인간번역(MAHT), 인간보조 기계번역(HAMT), 컴퓨터보조 번역(CAT) 등 유관 용어들과는 상이한 것이다. (Qun Liu and Xiaojun Zhang, 'Machine Translation: General', 2015, 105)

그러나 번역의 본성 자체와 관련하여 인간번역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필요로 하는 보다 근본적인 쟁점이 존재한다.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특히 자동처리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영역 내에서, 무엇이 번역에 해당되는지를 보통 자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Martin Kay, 'It's Still the Proper Place', 1997, 37)

최근 들어 테크놀로지 기반 번역학 연구를 주도하면서 번역학과 공학 간의 상호 협력 및 학제적 연구를 추동하고 있는 미나코 오헤이건(Minako O'Hagan)에 따르면 번역학의 무관심으로 번역 산업계와 학계 사이에 현지화(localization)를 둘러싼 개념 상의 간극이 생겼고, 번역 이론과 테크놀로지 지향 번역 연구 간의 상호무관심으로 발생한 공백이 번역학 내에 현저히 남아있으며, 그 결과 번역 이론과 테크놀로지 지향 번역 연구 양자 모두 언어 및 번역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연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학 차원의 일반화된 관심 부족으로 인해 현지화와 번역 사이의 개념적 관계가 모호하게 남아있었다. 예를 들어, 하틀리(Hartley, 2009: 107)가 강조한 바와 같이, 산업계는 현지화를 '현지나 지역의 문화를 고려하는' 번역의 특별한 형식으로 다루지만, 번역학 내에서 '현지나 지역의 문화를 고려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진 번역 자체의 정의'이다. (Minako O'Hagan, 'The Impact of New Technologies on Translation studies: A Technological Turn', 2013, 507)

왜냐하면 오늘날 번역이론이 테크놀로지-지향 연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반면 테크놀로지 지향 연구는 이론적 함의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상호 간의 결합들에 의해 번역이론과 테크놀로지 지향 연구 사이의 현저한 간극이 강화되어 번역학 내에 남아있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언어와 번역 테크놀로지의 유관 연구 영역들에 포함된 다른 인접 학문 분야들과 번역이론 및 테크놀로지 지향 연구들 사이에도 상호 간 영향 관계는 무시할 정도이다. (Minako O'Hagan, 'The Impact of New Technologies on Translation Studies: a Technological Turn', 2013, 508)

4. 기술 통합적 번역학으로서의 번역공학

이제 본고의 모두에서 사용한 번역공학(translation technology)이라는 명칭과 그 정의를 살펴볼 차례이다. 우선 '번역공학'이란 한국어 명칭은 장 들릴(Jean Delisle) 등의 *Terminologie de la traduction/Translation Terminology/Terminología de la Traducción/Terminologie der Übersetzung*(1999)⁷⁾에서 사용된 'traductique/translation technology/traductica/Traduktik'를 옮긴 것으로 '정치공학'⁸⁾을 염두에 둔 것이다. 사실, 'traductique'이란 불어 표현은 프랑스의 번역이론가 앙트완 베르만(Antoine Berman)에 의해 1985년 발표된 소논문 "La traduction et la lettre ou l'auberge du lointain"⁽³⁹⁾⁹⁾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traduction(번역)'과 'informatique(정보과학)'를 결합시켜 만든 신조어이다. 이후 이 용어는 장 들릴 등의 4개국어 번역학 용어집에 등재되었으며, 불어권에서는 제법 널리 사용되고 있다¹⁰⁾.

- 7) 4개국어로 된 본 번역학 용어집 내 영어판('Translation Terminology')은 2005년 이연향의 번역을 통해 『번역 용어집』(한국문화사)으로 출간되었다.
- 8) "정치공학(政治工學, 영어: political engineering)은 정치의 구조를 공학적으로 다루는 방법론이라는 뜻으로, 본래 구소련에서 사용되던 단어이다. 이는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을 통치(혹은 억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정치적 수단을 의미한다."(위키백과)
- 9) 본 논문은 베르만 사후 1999년 같은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고, 이 책이 윤성우와 이향에 의해 2011년 『번역과 문자-먼 것의 거처』(철학과현실사)로 번역되었다. '번역공학(traductique)'이란 표현이 등장하는 부분의 한국어 번역은 다음과 같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번역학은 가장 최근에 탄생한 신생 학문, 즉 컴퓨터공학과 산업공학의 영향을 받아 '번역 공정들'을 전산화 시스템에 편입시키려는 학문인 번역공학(traductique)이라 부르기 시작한 분야와 대립되는 것임에 틀림없다.”(앙트완 베르만, 2011, 22, 본고의 저자가 번역의 일부를 수정하였음)

- 10) Monique Cormier et Denise Estival (eds.)(1992) « Études et recherches en traductique », *Meta*, 37(4); Pierrette Bouillon et André Clas (1993), *La Traductique : études et recherches de traduction par ordinateur*, Montréal : Presses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Christine Durieux (1997), "Synergie de la traductologie et de la traductique", *Parallèles* 19, 63-78; Marie-Claude L'Homme (2000), *Initiation à la traductique*, Québec : Linguattech.

‘번역공학’은, 장 들릴 등의 용어집(1999, 193)에 따르면, “번역의 전산화와 관련된 모든 쟁점들과 기술들을 다루는 번역학의 분야”로서 전면 자동화 고품질 번역(fully automatic high quality translation, FAHQT)부터 인간 보조 기계 번역(human-assisted machine translation, HAMT), 기계보조 인간번역(machine assisted human translation, MAHT) 및 각종 번역 도구들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 우리는 이 같은 설명을 바탕으로 번역공학을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번역 및 번역 테크놀로지에 대한 연구, 즉 ‘기술 통합적 번역학(Technology-Integrated Translation Studies)’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번역공학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1990년대 기계번역 연구는 번역에 대한 몇 가지 기본 가설들에 입각해있었다. 먼저, 언어학 기반의 번역학자인 볼프람 빌스(Wilss 1999: 141)에 따르면 기계번역은 자연언어가 기계에 의해 조작되고 조정될 수 있으며, 전적으로 기술(記述)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준(準)수학적인 코드로 이해될 수 있다는 가정에 의거한다. 그 결과, 기계번역에서 번역은 언어 현실에 대한 터무니없는 왜곡 속에서 언어자료 처리의 특별한 형식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언어공학자인 마틴 케이(Kay 1997: 37)는 기계번역에서 번역 텍스트를 구성하는 문장의 시퀀스들에 해당 원문들의 의도된 의미들이 명백히 보존될 수 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한편, 번역공학의 시의성을 인정하여 그 불어 명칭과 개념을 제안한 바 있는 앙트완 베르만(1987)은 그럼에도 번역공학이 품고 있는 위험한 전제들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번역공학의 시각에서 언어란 기본적으로 인공적 매체를 활용하여 끊임없이 줄여나가야 하는 부정적 양상이며, 따라서 번역은 선택적으로 번역 가능한 매체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6). 또한 번역공학자에게 번역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의 전달과 순환이므로 번역 과정의 각종 정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언어의 자연성이 손상되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번역을 대상화하여 통제 가능한 도구로 만드는 한편, 번역을 예측화하여 기술적 조작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7).

현대 번역학자들 가운데 마이클 크로닌(Cronin 2013: 2, 8)이 기술 통합적 번역 연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즉, 테크놀로지는 전통적으로 번역에 대한 보조물이 아니라 부속물(adjunct)이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회에서 번역의 정의에 테크놀로지가 포함된다는 주장이 계속적으로 있어왔다. 따

라서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어떻게 번역과 그 도구들이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며 서로서로를 형성해왔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마틴 케이(Kay 1980: 3)는 컴퓨터공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이 번역 생산의 실질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나 그들이 막연히 이해한 문제들에 선블리 공학적 해결책을 제시해선 안 되며, 반드시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처리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그것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학자들과 대중 모두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오래 전에 충고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볼프람 빌스(Wilss 1999: 142)도 컴퓨터공학이 번역을 일상적인 언어 수행의 특별한 경우로 보아야 번역학과의 공조가 가능하며, 번역을 언어 문제 해결의 특별한 경우로 보아선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역사적으로 기술 통합적 번역 연구에 대한 선례는 번역학과 공학의 양쪽에서 드물게나마 찾아볼 수 있다. 번역학 분야에선 프랑스의 번역학자 조르주 무냉(Georges Mounin)이 이미 1964년에 ‘번역 기계: 언어 문제의 역사(La machine à traduire : histoire des problèmes linguistiques)’라는 저술에서 기계번역의 역사를 언어학적 관점에서 다룬 바 있다. 언어공학의 차원에서는 마틴 케이(1980)와 알란 멜비(Alan K. Melby, 1981) 등이 번역에서 인간과 기계 사이의 공존 가능성을 탐구한 바 있다.

한편, 미나코 오헤이건(O'Hagan 2013: 512-514)은 최근 들어 실무 번역가들이 기계번역을 더 이상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국제화로 인해 다양한 테크놀로지의 사용에 대한 요구가 시장으로부터 점증함을 깨달아 작업 환경에 컴퓨터기반 기술 도구들을 접목시키려는 변화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마리 스텔-혼비의 번역학 내 패러다임 변화론의 시각에서 가장 최신의 경향을 번역학의 ‘테크놀로지적 전환(technological turn)’으로 규정하고 기술 통합적 번역이론들이 언어 및 번역 테크놀로지 연구자들에게 적절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줄 것이며, 번역학자들의 입장에서 기술 통합적 번역학이 역동적인 기술혁신적 환경에서 번역 과제의 본질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피력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오헤이건은 기술 통합적 번역학을 크게 테크놀로지 중심 연구(technology-focused research)와 테크놀로지 개입 연구(technology-enabled research)로 나누고 그 여섯 가지 하위분야로 코퍼스 기반 및 코퍼스 주도 연구, 번역에서의 인지 과정과 사용자의 번역 수용 및 지각

에서의 인지과정 연구, 시청각 번역 연구, 번역의 현지화 및 국제화 연구, 기계 번역과 인간번역 사이의 심층 연결 연구, 사회연결망 기술과 번역 연구 등을 제시하였다.

5. 번역공학적 이성 비판: 번역학의 과제

우리는 이제 기술통합적 번역 연구로서의 번역공학과 번역학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번역공학’ 개념을 최초로 제안한 베르만(Berman 1985: 84, 1987: 6)에 따르면, 컴퓨터공학과 산업공학의 영향 하에 ‘번역 공정’을 자동화 시스템에 편입시키려는 번역공학은 번역학에 대해 다음의 네 가지 점에서 대립 관계에 놓여있다.

첫째, 번역공학은 기술과 번역 행위 사이에 어떤 본질적인 연결고리를 상정하기에 과학·기술적 지식에 해당된다면, 번역학은 비록 구체적 분석을 위해 과학을 지향하는 언어학이나 기호학의 범주나 방법을 활용하긴 하지만 엄연히 번역에 대한 철학적 지식이다. 둘째, 번역에 대한 두 가지 작용을 엄격히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번역공학이 번역에 대한 지식을 지속적인 전산화 및 디지털화하는 과정이라면, 번역학은 번역에 대한 자기반성 및 성찰에 해당된다. 셋째, 번역공학의 관점에서 언어가 인공적인 매체들을 통해 무한히 축소시켜야 할 부정성의 차원이므로 따라서 번역은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 번역학의 관점에서 언어는 우리의 거처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차원이므로 번역은 그 안에서 어떻게 사고하고 쓸 것인가 하는 ‘질문’과 같다. 넷째, 번역에서 커뮤니케이션 개념은 작품 및 작품 번역을 규정하기에는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더욱이 이 개념은 기술공학이 돌이킬 수 없게 차지한 개념이므로 번역학이 아닌 번역공학의 소관이다.

한편, 베르만(1987)에 의하면, 번역공학은 나름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즉, 기술과 공학은 번역가의 활동을 합리적으로 만들고 그 효율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으나 번역 대상과 매체가 갖는 근본적 조건의 변화를 유발하여, 번역 대상 언어 및 텍스트의 기술적 형식화를 추구하게 된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요구하는 소통의 조건에 부응하여 번역 가능한 텍스트가

되려면 필연적으로 입력 텍스트의 과학·기술적 글쓰기가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출력 텍스트 역시 통제 가능한 상태로 산출되어야하므로 그 언어와 텍스트의 자연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다른 한편, 베르만은 ‘번역공학’이라는 개념과 표현을 처음 제시한 1985년 논문(41)에서 번역을 전산적 형식으로 변화시켜, 테크놀로지와 번역 행위 사이에 본질적인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번역공학에 대해 번역학이 성찰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더 나아가 현대 번역학의 제반 과제들을 제시한 논문(1989: 678)에서 그는 번역학의 여덟 번째 과제로 ‘번역공학적 이성 비판(critique de la raison traductique)’, 즉 번역공학적 이성의 타당성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언어의 테크놀로지화라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 속에 사로잡힌 번역공학은 그 필수불가결한 인식론적, 문화적, 정치적 경계를 스스로에게 부과할 수 없으며, 더구나 오늘날 번역이 “정치적인 것”의 공간에 접어든 만큼 이 과제는 더욱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번역학이 번역공학적 이성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베르만(1987)의 시각에서 번역공학은 입력언어와 출력언어라는 두 이질적 매체 사이의 소통 과정에서 발생하여 번역에 부담을 주는 각종 유형의 손실(entropie)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 연구로서 이러한 손실의 축소 과정은 무한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이 과정 중에 새로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더구나 완전 번역을 목표로 추진하는 대상 언어와 텍스트의 프로그래밍은 어느 순간 언어와 텍스트의 자연성을 파괴하고 새로운 소통불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번역 영역을 테크놀로지화하는 절차는 스스로 한계를 정하여 소통의 관점과 인간 조건으로서의 ‘언어내 존재(être-en-langues)’라는 관점에서 역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을 예상할 수 없다. 이는 번역공학이 언어의 대상화라는 끊임없는 나선 운동에 사로잡혀 있기에 그 자신에게서 벗어나 그 본질과 한계를 사유할 수 있는 반성적 담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번역학에 의한 번역공학적 이성 비판은 번역학이 번역공학에 대해 우월한 위치임을 자임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공학이 자신의 영역을 보다 확고히 인식하고 그 한계를 자각하게 함으로써 번역공학이 자신과 인간 존재의 기반인 언어 매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최근 들어 정부와 황색언론을 통해서 AI번역 및 4차 산업혁명의 광풍이 몰

아치는 가운데 번역 관련 학계, 업계 및 교육계에서도 번역가의 지위와 직무의 지속성 그리고 인간번역의 창의성에 대한 적지 않은 회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에 조급한 대응을 통해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다 보니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목격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인식의 변화가 기술통합적 번역학 연구 및 번역가 교육이라는 새로운 조류의 형성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동안 인간의 번역 능력에 대한 과도한 확신 속에 ‘컴퓨터보조 번역(CAT)’이라는 부수적 활용 수단으로만 취급했던 기계번역을 돌연 맹신하여 교육과 연구를 이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경향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본다.

다행히 국내 번역학계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조급증과 기계 맹신에 대한 경고와 반성의 움직임이 최근의 두 논문(송연석 2018, 송상헌 2020)을 통해 표출된 바 있다. 필자는 이를 근거로 베르만이 이미 35년전 제안한 번역공학적 이성 비판의 가치를 국내 번역학자들이 되새겨 볼 좋은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가리 카스파로프 (2017) 『답 썬킹 -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 믹 그린가드/어크로스.
- 송상헌 (2020) 「기계 번역에 대한 몇 가지 오해」, 『번역·언어·기술』 1: 5-23.
- 송연석 (2018) 「기계번역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번역학연구』 19(1): 119-145.
- 앙트완 베르만 (2011) 『번역과 문자-먼 것의 거처』, 윤성우 & 이향 옮김, 서울: 철학과현실사.
- 장가브리엘 가나시아 (2017) 『특이점의 신화』, 파주: 글항아리.
- 존 험블리, 제프리 코비, 수 엘렌 라이트 (2005) 『번역 용어집』, 이연향 역, 서울: 한국문화사.
- 홍성욱 편저, 김소영, 김우재, 김태호, 남궁석, 홍기빈, 홍성욱 저 (2017)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령-우리는 왜 4차 산업혁명에 열광하는가』, 서울: 휴머니스트.

- Baker, Mona (ed.)(1998)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1st ed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aker, Mona and Gabriela Saldanha (eds.)(2009)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2n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aker, Mona and Gabriela Saldanha (eds.)(2020)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3r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ar-Hillel, Yehoshua (1951) ‘The Present State of Research on Mechanical Translation’, *American Documentation* 2(4) 229-237.
- Berman, Antoine (1985) “La traduction et la lettre ou l’auberge du lointain”, in Antoine Berman et al. (éds.) *Les tours de Babel—essais sur la traduction*, Mauvezin : Trans-Europ-Repress, 1985, 33-150.
- Berman, Antoine (1987) “Introduction au concept de traductique”, *Protée* 15, 5-10.
- Berman, Antoine (1989) “La traduction et ses discours”, *Meta* 34(4), 672-679.
- Berman, Antoine (1999) *La traduction et la lettre ou l'auberge du lointain*, Paris: Seuil.
- Cronin, Michael (2013) *Translation in the Digital A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Delisle, Jean, Hannelore Lee-Jahnke and Monique C. Cormier (eds.)(1999) *Terminologie de la traduction, Translation Terminology, Terminología de la traducción, Terminologie der Übersetzung*,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Ganasia, Jean-Gabriel (2017) *Le mythe de la singularité : Faut-il craindre l'intelligence artificielle*, Paris: Seuil.
- Has, Geneviève (2015) “Le fantasme de la traduction automatique : esquisse d’un imaginaire frelaté”, *Sens public*. Available at [www.sens-public.org/spip.php?article\(2018년 1월 5일 검색\)](http://www.sens-public.org/spip.php?article(2018년 1월 5일 검색))
- Holmes, James S. (1988)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 (1972)’, in James S. Holmes, *Translated! Papers on Literary Transl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Rodopi, 66-80.
- Hutchinson, John (1994) ‘The Georgetown-IBM Demonstration, 7th January

- 1954', *MT News International* 8, 15-18.
- Kasparov, Garry (2017) *Deep Thinking: Where Machine Intelligence Ends and Human Creativity Begins*, Public Affaires.
- Kay, Martin (1980) 'The Proper Place of Men and Machines in Language Translation', Xerox Corporation.
- Kay, Martin (1997) 'It's Still the Proper Place', *Machine Translation* 12, 35-38.
- Liu, Qun and Xiaojun Zhang (2015) 'Machine Translation: General', in Sin-Wai, Chan (ed.)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Technolog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05-119.
- Melby, Alan K. (1981) 'Translators and Machines—Can they Cooperate?', *Meta* 26(1), 23-34.
- Mounin, Georges (1964) *La machine à traduire: histoire des problèmes linguistiques*, London, The Hague, Paris: Mouton.
- Munday, Jeremy (ed.)(2009) *Routledge Companion to Translation Studies*, revise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O'Hagan, Minako (2013) 'The Impact of New Technologies on Translation Studies: A Technological Turn', in Carmen Millán and Francesca Bartrina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503-518.
- Quah, Chiew Kin (2006) *Translation and Technology*, Houndmills, Basingstoke &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Snell-Hornby, Mary (2006) *The Turns of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Wilss, Wolfram (1999) 'Interdisciplinarity in Translation Studies', *Target* 11(1), 131-144.

<인터넷 자료>

- 위키백과, “황색언론”, “정치공학”. ko.wikipedia.org, 2018년 1월 5일 검색.
- 조선일보, 2017년 12월 25일, <최보식이 만난 사람>, “기계의 叛亂이라고? 인

간은 기계에 당할 만큼 어리석지 않아”. www.chosun.com, 2018년 1월 5일 검색.

- Kenny, Harry C. 'Robot Translates Nimbly', *Christian Science Monitor*, 11 January 1954. Available at www.csmonitor.com (2018년 1월 5일 검색).
- Plumb, Robert K. 'Russian Is Turned Into English By a Fast Electronic Translator; Calculator Takes on a New Job: Language Translation LANGUAGE DEVICE TRANSLATES FAST', *New York Times*, 8 January 1954. Available at www.nytimes.com (2018년 1월 5일 검색).

[Abstract]

**Critique of the Translation Technology's Reason:
the Task of the Translation Studies in the Digital Age**

Yi, Yeong-Houn
(Korea University)

In the digital age we live now, technology is neither an accessory nor an adjunct to translation, but it is central to the definition of translation activity. Moreover, James S. Holmes, in his seminal paper on “The Name and the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 (1972), has defined the machine as a medium which performs the translation as the humans do. Even in the translation process by the Google Translate, it is true that we don't see the presence of the human translator anywhere. Therefore, it is an urgent task for the translation studies to criticize the translation technology's reason, that is, to objectify and domesticate the translation by the digitalization of all knowledge on translation. Taken in the irrevocable movement of the technologization of the language, the translation technology can't set for itself the epistemological, cultural and even political bounds necessary. But the translation studies, reflective knowledge on translation, can and must allow the translation technology to better assume its own field and to better perceive its limits. Otherwise, the translation technology could be transformed into a radical attempt to destroy all the languages-mediums forming the base of itself and of the human existence.

▶ Key Words: Critique, Digital Age, Singularity, Task of Translation Studies, Technological Reason

▶ 주제어: 공학 이성, 디지털 시대, 번역학의 과제, 비판, 특이성

이영훈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정교수

erasme@korea.ac.kr

관심분야: 번역개념사, 번역사회학, 번역비평

논문투고일: 2020년 9월 6일

심사완료일: 2020년 9월 22일

게재확정일: 2020년 10월 8일